

 금융위원회	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<h1>보 도 자 료</h1> 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">  </div>				
 금융감독원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020.6.24(수)	
책 임 자	금융위 금융시장분석과장 이 석 란(02-2100-2850)	담 당 자	이 종 립 사무관 (02-2100-2853) 김 나 혜 사무관 (02-2100-2854)		
	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 이 경 식(02-3145-7580)		이 동 춘 증권시장팀장 (02-3145-7611)		

제 목 :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

- 7.1일부터 **환매조건부매매(RP)***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, RP 매도잔액의 일정 비율을 **현금성 자산**으로 보유해야 합니다.

* RP(Repurchase Agreements, 환매조건부 매매)란 유가증권을 매수(또는 매도)하고 일정기간 후에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다시 매도(매수)하는 거래

1 추진배경

- 금융위원회는 「RP시장의 효율성·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」의 후속조치로 RP 시장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.

< 참고 > 「RP시장의 효율성·안정성 제고방안」 주요내용('19.3월 발표)

- RP 매도로 자금 조달 시 차환리스크에 대비한 유동성 관리 (현금성 자산 보유 의무화)
- 담보채권의 담보기능 강화를 위한 최소증거금률 산정 방식 개선 (일률적 5% 적용 → 담보 증권 특성 및 거래상대방 신용을 반영하여 차등화)
- 장내 RP거래 활성화를 위한 참여자 확대 등

- RP 매도인이 RP거래에 따라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도록 지난 '19.12월 자본시장법 시행령* 개정으로 근거를 마련하였고,

*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1조③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상호간에 환매조건부매매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

2. 대상 증권의 매도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현금성 자산을 보유할 것

- 현금성 자산의 범위 등 세부 내용을 정하는 「금융투자업규정」 개정안이 금융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.

2 | 주요 내용

① 현금성 자산의 범위 규정

- 처분에 제한이 없고, 당일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현금성 자산 의무 보유 기준에 적합한 자산으로 정하였습니다.

< 현금성 자산으로 인정되는 금융상품(규정 §5-23조의2제1항) >

- ① 현금 ② 예금·적금 ③ 양도성예금증서 ④ 당일 인출가능한 대출 약정
- ⑤ 증권금융회사 예탁금(※ 고객자금·증거금 등 처분에 제한 있는 자금 제외)
- ⑥ 수시입출식 금전신탁·투자일임재산(MMT, MMW)의 30%
- ⑦ 은행·증권사·증권 발행어음 ⑧ 한국은행에 보유된 지급준비금

- 외화 예금 등 외화 표시 자산도 현금성 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현금성 자산으로 인정합니다.
- MMT, MMW의 경우, 시장 충격 상황 하에서 대규모 출금 요청 시 일부 현금화 제약 가능성이 있어, 현재 시행 중인 유동성 규제* 비율(30%) 만큼만 인정합니다.

* (금투업규정 제4-77조제14호 및 제4-93조제20호) 현금, 국채, 통안채, RP, 단기 대출, 수시입출예금, 잔존만기 7영업일 이내 CD·예금, 지방채, 특수채 ⇒집합투자 재산의 30%이상 유지

② 현금성 자산 보유 의무 비율

- RP 매도자는 현금성 자산을 '20.7월에는 RP 매도잔액의 최대 1%, '20.8월~'21.4월까지의 최대 10%, 그 이후에는 최대 20% 보유해야 합니다.
- 기일물(만기 2일 이상 거래)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RP 거래 기간이 장기일수록 낮은 비율의 현금성자산 보유 비율을 적용하였습니다.
- 시행 과정에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, 시장 참가자들의 규제 이행 부담 완화를 위해 3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.

- ❶ 단계: '20.7.1~'20.7.31일 동안에는 익일물만 해당 RP거래 규모의 1%에 해당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면 됩니다.
- ❷ 단계: '20.8.1~'21.4.30일인 9개월(3분기) 동안에는 익일물은 10%, 기일물은 0~5%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.
- ❸ 단계: '21.5.1일부터는 익일물은 20%, 기일물은 0~10%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.

< RP거래 만기에 따른 현금성자산 의무 보유 비율 >

구분	익일물	기일물		
거래만기	1일	2~3일	4~6일	7일 이상
1단계('20.7.1~'20.7.31)	1%	0%	0%	0%
2단계('20.8.1~'21.4.30)	10%	5%	3%	0%
3단계('21.5.1일부터)	20%	10%	5%	0%

③ 현금성 자산 보유 비율 산정 기준이 되는 RP거래 규모

- 현금성 자산 보유 기준이 되는 RP거래 규모는 기본적으로 직전 3개월의 월별 일평균 RP 매도 잔액 중 최고액으로 정하였습니다.
- 다만,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수시로 환매가 가능한 특징을 감안하여, 당일 RP 매도잔액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.

3 | 향후계획

- ☐ 규정 개정안은 7.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, 규정 변경안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- ☐ 아울러, RP 매수인의 최소증거금을 적용 방식 개선 방안*이 7.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

* RP 거래 시 담보증권의 특성(잔존만기, 증권화 여부 등)과 매도자의 신용 위험을 반영하여 최소증거금을 설정하도록 함(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1조제3항제1호)

- 최소증거금을 적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감독당국과 업계가 준비 중으로, 8월말까지 마련하여 9.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

※ < 별첨 > RP 현금성자산 보유 및 최소증거금률 Q&A

◇ 외화 RP 매도 혹은 외화표시 자산의 경우 환산 환율은?

- ☐ (외화 RP거래의 원화 환산) RP 매도 잔액 산출일의 기준 환율
(또는 재정환율) 사용
- ☐ (외화표시 자산의 원화 환산) 현금성 자산 보유 의무일의 기준
환율(또는 재정환율)

※ 원화 RP 및 외화 RP 합산액을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 보유 의무액을
산정하고, 현금성 자산 보유 통화는 원화 혹은 외화 중 선택하여
보유 가능

◇ 개방형 RP*의 경우 적용되는 비율은?

* 「증권 등의 담보 관리에 관한 규정」 상 개방형 RP의 경우 환매하고자 하는
날을 포함하여 3 영업일 이전에 환매 청구 필요

- ☐ 개방형 RP의 경우 만기 2~3일 RP거래와 같이 취급(10%)

◇ 직전 3개월 RP 매도 잔액이 없는 경우는?

- ☐ 현금성 자산 보유 규제를 적용하지 않음

* 단, 직전 3개월 동안 단 하루라도 거래 잔액이 없었던 경우를 의미

◇ 현금성 자산으로 인정되는 대출약정의 범위?

- ☐ 커미티드 크레딧 라인 외에 일반 한도 대출 약정도 현금성 자산
으로 인정

※ 다만,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혹은 차주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약정
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정지 혹은 감액되는 경우에는 잔존 한도만 인정

- ☐ 증권금융의 융통어음할인약정, 일중대출약정 등은 증권금융의
자금 사정에 따라 한도금액이 줄거나 대출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
현금성 자산으로 불인정

◇ 대고객 RP거래 혹은 장내 거래도 포함되는지?

☐ 현금성 자산 규제는 기관*간 RP 거래· 장외 거래에만 적용

*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3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

◇ 현금성 자산을 매일 보유해야하는 건지?

☐ RP 매도자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현금성 자산을 매 영업일마다 보유해야 함

◇ RP 만기가 잔존만기인지 거래 만기인지?

☐ 거래 만기(원만기)에 따라 현금성 자산 보유 비율 결정

◇ 월별 일평균 RP 매도 잔액을 구할 때 해당 월 일수로 나누어야 하는 지 영업일 수로 나누어야 하는지?

☐ 영업일별 RP 매도 잔액 총 누적액을 영업일 수로 나눈 금액

◇ 직전 3개월 기준의 적용례?

※ 예시: (익일물 RP) '18.7월 ⇒ 직전 3개월('18.4월, 5월, 6월)의 월별 익일물 RP 매도 평균 잔액(50조원, 60조원, 70조원) 중 최고 금액인 70조원이 기준

만기별 월평균 잔액 (조원)	18.4	18.5	18.6	18.7	기준금액	현금성자산 보유비율	필요 현금성자산 규모
익일물	50	60	70	40	70	20%	14
2~3일물	40	30	20	35	40	10%	4
4~6일물	20	30	40	20	40	5%	2

◇ 금감원 최소증거금률 가이드라인의 성격은?

- ☐ 금감원 최소증거금률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 성격으로 법적 강제성은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임
- ☐ 다만, 상대방의 신용등급과 담보증권의 가치를 반영하여 운영하는 최소 증거금률 제도가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, 업계에서 일정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요청을 함에 따라 「최소증거금률 가이드라인」을 마련·시행할 예정

◇ 「최소증거금률 가이드라인」 시행시기(9.1일)과 최소증거금률 시행시기(7.1일) 간에 약 두 달의 차이가 있는데?

- ☐ 「최소증거금률 가이드라인」 제정에 대한 행정절차 및 업계의 준비 상황 등을 감안하여 가이드라인은 9.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음
- ☐ 따라서 7.1일부터 가이드라인 시행 전까지는 별다른 가이드라인 없이 업계에서 자율로 최소증거금률을 운용하면 됨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
할 경우 출처를 표기
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